

壬辰年 새해 인터뷰

“비상하는 黑龍처럼... 도전하고 극복하는 굳은 의지로 새로운 도약을”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시장 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건설경기의 회복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3월 초 취임하신 이래 회장님께서서는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일들을 수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협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엿그제 같은데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0개월 간 저는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국회 등 관계 요로에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설명 드리고 정책을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부도 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올해 주택시장 정상화 및 건설경기 연착륙 등 6차에 걸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대책에서 정부는 PF 정상화뱅크 운영, P-CBO 발행, 대주단협약 연장 등 금융지원, 취득세율 감면 연장,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세제지원,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통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및 공모형 PF 사업의 정상화 지원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의 최대 근심거

“건설산업을 둘러싼 사회적·시대적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으며 경영 환경도 과거와 같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봐서는 건설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리였던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2년 간 유예함에 따라 지역 중소 업체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건설 상품 다양화 및 신시장 개발 등 건설업계의 성장 동력 확충과 새로운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미래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건설 주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건설 문화 콘텐츠를 구상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외·내재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상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회장님께서 건설업계가 이처럼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국내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 SOC 물량도 지속 감소함에 따라, 업체간 물량 확보를 위한 저가 수주로 공사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등 과도한 주택규제는 주택 실수요자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속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건설업계는 이제까지 공급자 중심의 시각과 정부 의존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PF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분

석 없이 부동산경기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을 둘러싼 사회적·시대적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으며 경영 환경도 과거와 같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회적 트렌드와 시장의 변화를 외면하고 수요자의 니즈를 도외시한 채 어려울 때마다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봐서는 건설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어 감에 따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첨단 신기술 및 문화산업과의 융·복합, 친환경 산업으로의 변화 및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는 상품 개발 등의 노력과 함께 내실 있는 경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부패, 환경 파괴 등 국민의 뇌리에 심어진 부정적 이미지도 건설 정책이나 투자 환경을 악화시켜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도 사회적 책임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산업을 전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건설산업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의 확대 여부였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2년 간 유예하는 것으로 일단 문제를 봉합하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만 ...

최저가낙찰제의 폐지는 올해 건설업계의 가장 큰

“칠혹 같은 어둠을 뚫고 첫새벽 하늘로 비상하는 흑룡처럼 새해에는 우리 건설인들이
당당하게 현실의 모든 난관을 뚫고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현안 사항이었습니다. 2년 유예로 일단락되었지만 최저가낙찰제는 품질이 아닌 가격 경쟁만을 부추김으로써 건설업계의 경쟁력 하락뿐만 아니라 국민 편의 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결정을 계기로 최저가낙찰제 공과(功過)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조사·검토하여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품질 위주의 다양한 발주 방식을 도입하고 발주자가 공사 유형과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한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7일 발표된 건설 및 부동산 경기 대책은 이전의 대책들에 비해 시장에 온기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12·7 대책에 대해 환영을 하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의 한시적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은 이전과 다르게 부동산시장의 목을 조르던 규제를 완화해 준 것으로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P-CBO의 추가 발행과 공모형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설치·운영될 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 주택경기 호황기에 도입된 징벌적 규제인 투기지역 지정,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규제, 분양가상한제, DTI 규제 등도 대폭 완화하여 정상적인 주택 거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권의 지급 보증 요구 관

행 근절, PF 전문 보증기관 활성화, 투자 은행 육성 등 건설 금융의 선진화 계획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건설인 및 그 가족들에게 보내는 새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임진년(壬辰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흑룡띠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용은 용기와 비상,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영적인 동물이고, 흑룡은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위풍당당한 기상을 지녔다고 합니다. 칠혹 같은 어둠을 뚫고 첫새벽 하늘로 비상하는 흑룡처럼 새해에는 우리 건설인들이 당당하게 현실의 모든 난관을 뚫고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위축되고 있고 우리 건설산업도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시련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가까이 있으며,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당면한 고난의 끝이 저만치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뛰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현재의 위기는 지난 60여 년 간 건설산업 성장의 역사에 반복된 시련 중의 하나일 뿐 결코 건설기업들의 도전과 극복의 의지마저 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임진년 새해는 신새벽을 비상하는 흑룡처럼 우리 건설산업도 척박한 현실을 딛고 희망의 미래로 용틀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ERIK

글·사진 : 이형우 편집장